

북한경제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삼국연의에서 삼국지로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hzang@hanyang.ac.kr

학문 연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관련 연구는 ‘북한학’이라고 불리는 지역학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지역학은 우선 연구 대상 국가에 대한 현황 파악부터 시작하여 그 국가와 협력을 통하여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정책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중국, 베트남, 일본 연구 등 지역학 분야 중에서 그 지역의 경제분야 연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보다는 정치가 경제정책에 관한 중요 결정을 좌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경제 연구의 발전에도 다른 북한분야 연구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 각 분야에 대한 정보의 부족, 신뢰성 문제 등이 북한 관련 연구 발전에 장애가 되어왔다.

대부분의 동아시아(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삼국지’는 14세기 중국 명나라 때 나관중이 향간에 떠도는 이야기(설화), 경극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어낸 소설인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또는 삼국연의를 말한다. 이에 반해서 중국 한나라 말기부터 위·촉·오 삼국시대를 거쳐 오나라의 항복을 받아 280년 서진(西晉)이 삼국을 통일한 때까지를 기술한 정통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는 3세기 서진의 진수가 편찬한 정사(正史)이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소설인 삼국연의의 내용은 많은 학자들이 감수하여 탄생한 정사인 삼국지의 내용과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소설 삼국연의는 정사 삼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당시 명나라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 내었다. 삼국연의의 허구를 창조한 선구자는 중국 남송(南宋)의 주자(주희)였다. 그는 당시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중국의 핵심인 중원(中原)을 ‘오랑캐’에게 내주고 남쪽으로

쫓겨난 남송의 처지를 일반대중과 함께 교감하기 위해, 한족(漢族)의 후예를 대표하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의 축환을 의도적으로 삼국시대의 정통으로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위나라의 조조와 삼국을 통일한 사마(司馬) 가문의 사마의와 사마염은 격하되었고 유비와 제갈량, 관우는 장점만 부각되었다. 중국에서 대학자로 불리는 주자의 이러한 역사 왜곡은 한족들에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후 수백 년이 지난 후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이 다시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 때 나관중에 의해서 삼국연의로 재창조되었고 중국 일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관중 사후 600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람들은 삼국연의의 내용을 대부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나관중이 삼국연의라는 소설에서 만들어 낸 셀 수도 없이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설화)는 대부분이 ‘가짜 뉴스’ 내지는 ‘엄청난 과장’¹⁾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필수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 삼국지의 사실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문가들의 분석보다는 나의 신념을 뒷받침해 주는 삼국연의를 일반 대중은 좋아할 것이다. 십여 년 전부터는 중국에서도 삼국연의의 의도된 편견(myth)에서 벗어나 진실(truth)을 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삼국연의를 더 좋아한다. 하지만 학자·연구자는 일반 대중과 달라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거의 없었던 냉전 시대가 끝나고 1994년 7월 김일성이 갑자기 죽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간한 1급 비밀(top secret) 보고서에는 북한 정권이 5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북한 지도부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미국 CIA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 판단을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런데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한 후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 대한 전망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당시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북한정치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 북한 정치, 사회에 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이전 같은 중대한 판단 착오를 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여전히 북한 연구의 상당수는 냉정한 현실을 쓴 삼국지보다 믿고 싶은 것을 말해주는 삼국연의에 심취한 것 같다.

다른 분야 연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분석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북한경제분야는 여기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연구는 북한경제 현황 파악, 북한과 경제협력 방안, 남북통일 관련 광범위한 분야에서 세밀한 대처방안 마련, 새로운

1) 예를 들어,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와 제갈량의 제사를 통한 동남풍 불러오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며, 제갈량의 칠중칠금은 거짓은 아니라 할 지라도 매우 과장된 것이다. 또한 따른 술이 식기 전에 적장의 목을 베어 온 장군은 관우가 아닌 당시 오나라의 장수였으며, 조조군의 화살 10만 개를 짊을 짊은 배들로 받아 왔다는 설화의 주인공도 제갈량이 아닌 손권(주유)의 군대였다. 삼국연의에 묘사된 관우의 큰 칼 청룡연필도는 완전한 허구로서, 이는 관우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뒤인 당송(唐宋) 시대가 되어서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수준으로 매우 과장한 것이다.

북한경제 연구분석 방식 도입 등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적지 않다.

북한경제 연구는 고고학 연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고고학자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무덤을 발견하면 조심스럽게 흙을 들어내고 유물을 찾아낸 뒤 그 유물이 그동안 고고학계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한다. 이렇게 한가지씩 발굴과 분석이 쌓이면 어떤 가설은 사실이 되어가며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오게 된다. 이후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면 비슷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증거가 쌓이게 되고 그 분야 고고학 연구는 그만큼 발전하게 된다. 무덤 발견을 위한 위성사진 촬영 기술 활용, 무덤 발굴 유물의 연대 측정 기술 정교화, DNA 분석 기법 발전 등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고학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비슷한 이유로 근래에 북한경제 연구자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한 북한경제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도 기존 연구와 분석에 바탕을 둔 적지 않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과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은 북한경제 연구계에 새로운 무덤 발굴과 같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 가설들을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북한 연구분야보다는 활발하지만, 북한경제 연구계에서도 새로운 증거(무덤)가 발견되어도 그것에 관한 토론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 검증과 토론은 모든 학문 연구의 필수임에도, 전반적으로 한국 연구계가 선진국 연구계보다 이에 대해 머뭇거리는 것은 한국 연구계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북한경제 연구자 간 의미 있는 토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덤을 발굴하여 찾아낸 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가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이에 대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쌓아나가야 한다. 연구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발전은 연구자들 간 합의형성 과정이 존재하고 그것이 연구자 간에 존중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 모든 학문·연구의 목표인 진실 추구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연구분석과 검증을 통해 찾아낸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나(와 우리)의 선입견을 담고 있는 삼국연의의 가상현실에서 벗어나 삼국지의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경제 연구의 역사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도 있었다.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북한경제를 재조명한다는 콘퍼런스가 과거에 개최된 적이 있었는데, 정작 연구 대상인 북한경제 현황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현실에

무지한 금융 전문가는 북한 개발 ‘초기’에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최빈국 중 하나이며, 수익성 있는 PF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institutional) 조건을 충족하기에도 너무나도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 북한경제 현황에 대한 이해 부족은 필연적으로 비현실적인 대북한 경제정책을 초래할 것이며 그것이 가져올 우리 국익의 훼손은 심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연구자는 국제적·글로벌 시각에서 대북 경제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실질적인 해결 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북한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과 정상적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가질 것이며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회원국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남북경협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원하는 모든 새로운 경제주체들과 경쟁 또는 협력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한 대북 경제정책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때’는 훨씬 더 빨리 올지도 모른다.